

리테일 강세와 규제환경 변화 속 양극화 지속 전망

SUMMARY

2026 실적전망			신용등급 방향성		
저하	유지	개선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

투자심리 개선과 위험투자 확대로 대형사 중심 실적 개선되는 가운데 건전성 지표도 회복세로 전환
 2025년 3분기 누적 국내 증권사 순이익은 7.7조원으로 전년 동기(5.8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살펴보면 대형사 1.3%, 중소형사 0.7%로 업황 개선의 수혜가 주로 대형사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양극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반투자자의 국내·외 증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리테일 부문이 강세이며, 자금조달능력과 영업력을 갖춘 대형사가 수도권 우량PF(Project Financing)을 선별 영입하면서 중소형사와 격차를 확대한 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익창출력의 개선과 지속적인 부실정리 노력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지표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과 2025년 9월말의 고정이자잔비율을 비교해보면, 대형사는 3.3%에서 2.4%로, 중소형사는 10.7%에서 6.1%로 각각 개선되었다. 자본적정성을 살펴보면 대형사는 총위험액의 증가에도 영업용순자본을 크게 확충하며 조정순자본비율이 상승하였다. 조정순자본비율이 200% 내외로 열위한 중소형사의 경우, 총위험액의 증가를 제한하면서 이익 창출 등을 통해 영업용순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조정순자본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Date

2025.12.09.

Contact

신승환

금융SF평가본부 책임연구원

02.2014.6373

seunghshin@nicerating.com

Contents

1. 산업의 최근 현황	2
2. 주요 크레딧 이슈	4
3. 2026 실적 전망	5
4. 신용등급 방향성	6
Appendix	7

IMA 및 빌행어음 인가 확대가 신용위험에 미칠 영향과, 중소형사의 부동산PF 손실부담 지속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IMA와 빌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추가적인 조달 옵션이 생기고,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 및 고객 유치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기회 요소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편입 자산의 부실 가능성, 원금보장 의무에 따른 부담, 불완전판매 방지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중소형사의 경우, 지속적인 부실정리 노력으로 부동산PF발 하방위험은 2024년말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부동산금융 의존도를 재차 확대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대형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자본력에 기반한 운용(Book)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사의 실적 회복 수준과 경쟁력 유지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운용환경과 부동산PF 하방위험 완화 등 감안 시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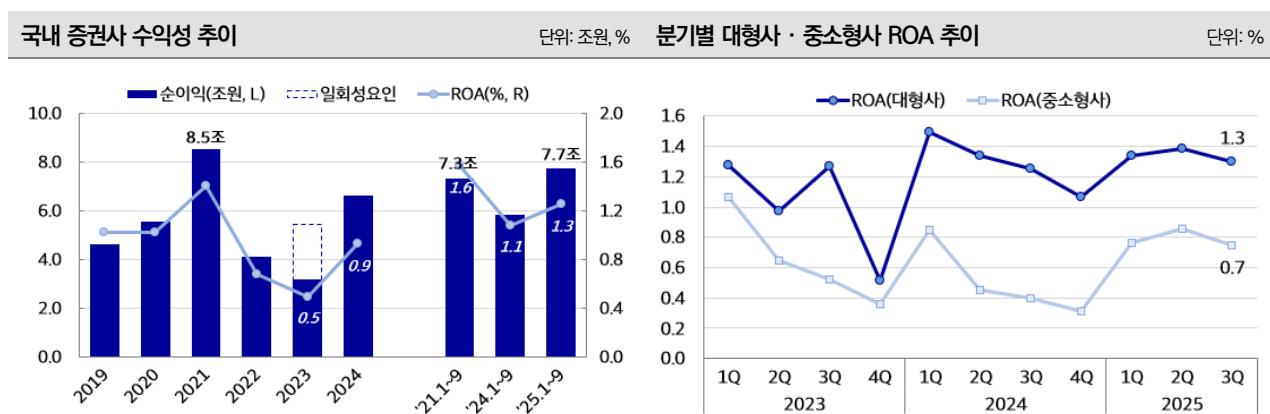
2026년 증권사 실적은 2025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리테일 부문의 강세와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위험투자 확대 기조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에 존재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저효과 역시 2026년 실적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사업 및 규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 수혜가 자본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갖춘 소수 증권사에 집중되고, 다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대형사의 구조적 우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증권업의 신용도는 단순한 실적 증감이나 업황 개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쟁사 대비 시장지위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운용환경의 개선, 부동산PF 하방위험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증권업계 전반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 산업의 최근 현황

투자심리 개선과 대형사 중심의 위험투자 확대로 증권업 실적 크게 호조

2025년 3분기 누적 증권사 순이익은 7.7조원, ROA(총자산순이익률)는 1.3%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8조원, ROA 1.1%)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순이익 규모는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8.5조원)의 1~9월 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ROA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규모별 ROA를 살펴보면 대형사¹ 1.3%, 중소형사 0.7%로 업황 개선의 수혜가 주로 대형사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양극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반투자자의 국내·외 증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리테일 부문이 강세이며, 자금조달능력과 영업력을 갖춘 대형사가 수도권 우량PF(Project Financing)을 선별 영업하면서 중소형사와 격차를 확대한 점 등이 주요 원인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²하는 가운데, 국내증시 역시 2025년 6월부터 정책 기대감과 상법 개정(7월)에 따른 구조개혁 효과, 반도체 사이클 본격화 등에 힘입어 투자수요가 크게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대비 27.6% 증가한 5.6조원을 기록하였다. 견조한 고객 기반과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사가 국내·외 위탁매매 점유율³의 7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증가분 가운데 75%를 10개 대형사가 가져가는 등 수익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주: 2023년 ROA 산정은 일회성요인(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배당(1.7조원), 대신증권-대신에프앤아이 배당금수익(0.4조원) 등)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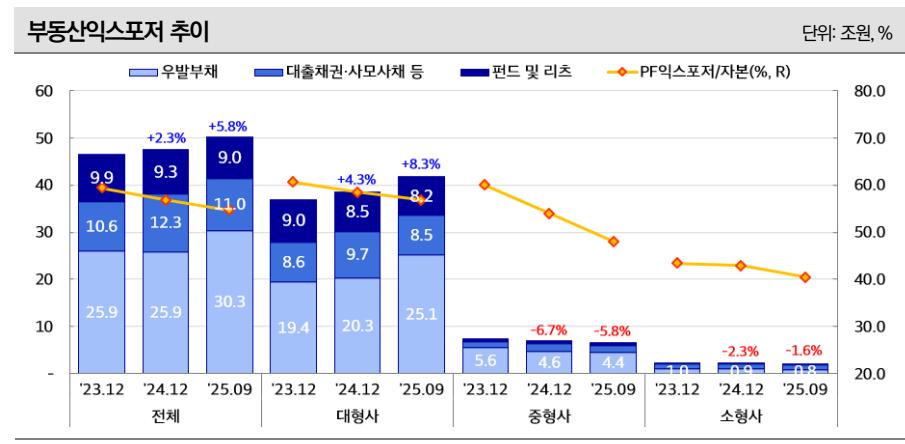
한편, 부동산금융 부문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공사비 상승, 대출 및 안전 규제 강화, 지역 간 수요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2022년 이전에 비해 사업환경 전반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금조달능력과 영업력이 우수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우량 PF(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선별적 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중소형사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사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2025년 9월말 41.7조원으로 2024년말 (38.5조원) 대비 8.3% 증가하였다. 반면, 중형사와 소형사는 동기간 각각 5.8%, 1.6%

¹ 규모별 분류는 당사 유효등급 보유 27개 증권사 기준. 대형사(자본 3조원 이상, 10개사), 중형사(1~3조원, 9개사), 소형사(1조원 미만, 8개사)

²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미국주식 거래대금은 2025년 10월 한달간 12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³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기준

감소하였다. 부동산금융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형사의 경우 2025년에도 여전히 대손 부담이 지속되며 수익성 회복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자산시장 가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주식, 집합투자증권 운용 등 자기매매 부문에서의 실적 회복을 통해 손실품수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실 자산 정리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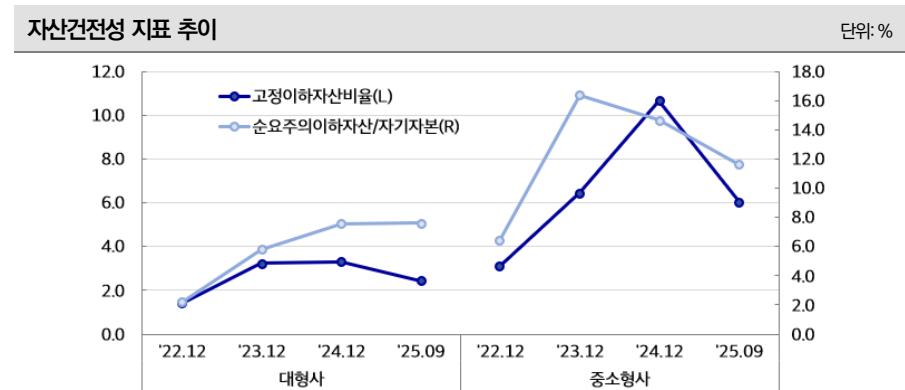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이익창출력의 증가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지표도 회복세로 전환

2024년 중 감독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 적용으로 인해 자산건전성 지표가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익창출력이 우수하고, 포트폴리오 질적위험이 비교적 나았던 대형사의 경우 고정이하자산비율이 2024년말 3.3%에서 2025년 9월말 2.4%로 개선되었다.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PF 비중이 높았던 중소형사의 경우 고정이하자산비율과 순요주의이하자산비중이 2024년 말 각각 10.7%, 14.6%까지 상승하였다가, 2025년 중 부실정리를 통해 각각 6.1%, 11.6%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적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대형사는 총위험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력 개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영업용순자본이 확대되면서 조정순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조정순자본비율이 200% 내외로 열위한 중소형사의 경우, 2025년에도 총위험액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이익 창출 등을 통해 영업용순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조정순자본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2. 주요 크레딧 이슈

IMA 및 발행어음 인가 확대가 종투사 신용위험에 미칠 영향

기존 발행어음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매년 순이익의 약 10% 내외를 기여하며, 수익 다각화에 뚜렷한 효과를 보여왔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인가 종투사에 추가적인 조달 옵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 및 고객 유치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지위 강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한다. 다만, IMA(종합투자계좌)의 경우 수익은 일반투자자와 공유하지만, 위험은 증권사가 부담(원금보장)하는 구조로, 증권사의 실질 조달의지와 상품구조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25년 11월 인가 발표과정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⁴되며, 종투사에 보다 엄격한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부과되었다. IMA 및 발행어음 모두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영역은 수익 잠재력과 함께 높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과소한 국내 하이일드 채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험자본 내에서도 우량한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교한 위험관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IMA 및 발행어음 사업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판단한다. 과거 IB가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금융 등 고위험 자산 확대가 수익성과 위험을 동시에 키웠던 사례를 반면교사하면서, 편입 자산의 부실 가능성, 원금보장 의무에 따른 부담, 불완전판매 방지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찰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현황 (2025년 11월말)

구분	8조원		4조원				3조원			
	한투	미래	NH	삼성	KB	키움	메리츠	하나	신한	대신
자기자본(25.09, 조원)	12.0	103	8.4	7.4	6.9	5.8	7.2	6.1	5.6	3.7
3조원 지정	'13.10	'13.10	'13.10	'13.10	'13.10	'22.04	'17.11	'19.07	'17.03	'24.12
발행어음	4조원 지정	'17.11	'17.11	'17.11	'17.11	'17.11	'25.11	신청	신청	신청
	단기금융업 인가	'17.11	'21.05	'18.05	신청	'19.05	'25.11	신청	신청	신청
8조원 지정(IMA)	'25.11	'25.11	신청				–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형사의 부동산PF 관련 손실부담 지속 여부

2025년 중 부동산금융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형사에 대한 등급 조정이 일단락되었고, 부동산PF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형사들의 부실정리 노력이 지속되면서 부동산PF발 하방 위험은 2024년말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중소형사의 대손 관련 부담(환입 등 포함)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8천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대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3분기 누적으로는 약 3천억원의 부담이 나타났다. 이를 순영업수익 대비

⁴ 모험자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 쏠림 방지를 위하여 'A등급 채권 및 증권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

비율로 보면 2023년(23.8%), 2024년(26.2%), 2025년 3분기(8.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손실 규모는 2025년 들어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열위한 손실흡수력으로 인해 부실 정리 수준이 미흡했으나, 2025년 들어 자기매매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일부 나타나면서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자산 정리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금융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형사들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위험관리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과거처럼 부동산금융 의존도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부동산금융에 대한 규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비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령봉투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레버리지 기반의 사업의 진입장벽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금동원력이 열위한 시행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점도 중소형사들에게 있어 새로운 수익 기반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6월 이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중소형사에도 일부 실적 개선의 온기가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 회복 흐름은 운용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형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자본력에 기반한 운용(Book)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사의 실적 회복 수준과 경쟁력 유지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2026 실적 전망

구조적인 양극화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증권사 실적은 2025년 대비 개선 전망

2026년 증권사 실적은 2025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2025년 실적 개선의 주 원인이었던 리테일 강세와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위험투자 확대 기조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증시와 일반투자자의 투자심리는 2026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확장 재정에 힘입은 성장을 촉진효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025년 상반기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증가 폭이 존재할 전망이다. 다만, 부담요인으로는 2026년 중 한국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통상 통화정책의 전환기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역사를 복기해보면, 거시환경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IMA 지정 및 빌행어음 추가 인가에 따라 관련 손익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심화로 인한 조달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나, 모험자본 도입 등 운용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신규 종투사들이 공격적인 운용 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고객 데이터 축적, 내부통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금융 공급을 독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관련 채권/

지분투자 및 신기술/VC 등 모험자본 투자는 장기적인 회수 구조를 띠기 때문에, 공급 규모와 성과의 지속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PF 관련 대규모 손실 위험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규모가 2022년말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에도 부실 정리작업에 따른 산발적인 대손 비용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관련 NCR 개편과 유동성비율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동 규제 변경에 따른 중소형사의 자본적정성 지표 및 유동성비율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규제 발표 이후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신용등급 방향성

우호적인 운용환경과, 부동산PF 하방위험 완화 등 감안시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

2026년 증권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이다.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우호적인 운용환경과, 부동산PF 하방위험 완화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업환경과 규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 수혜가 소수의 증권사에 집중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시장지배력을 공고화하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업의 신용도 판단 시 단순히 개별회사의 실적 증감이나 업황 개선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고, 경쟁사 대비 지위 개선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질적 수준, 자본안정력, 위험관리 역량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등급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Appendix: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

증권

기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투자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미래에셋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	A1	A1	-	-	A1
NH투자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삼성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
메리츠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P
	단기	A1	A1	A1	A1	A1	A1
KB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하나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N	AA/S
	단기	-	-	-	-	-	-
키움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P
	단기	A1	A1	A1	A1	A1	A1
신한투자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
	단기	A1	A1	A1	A1	A1	A1
대신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교보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	-	-	A1	-
한화투자증권	장기	A/S(후)	A/S(후)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신영증권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유인타증권	장기	A+/S	A+/P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현대차증권	장기	A+/P	AA-/S	AA-/S	AA-/S	AA-/S	AA-/S
	단기	-	A1	-	-	A1	A1
IBK투자증권	장기	A+/S	A+/P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BNK투자증권	장기	-	A+/S	A+/P	A+/S	A+/S	A+/S
	단기	A2+	A1	A1	A1	A1	A1
iM증권	장기	A+/S	A+/S	A+/P	-	-	-
	단기	A1	A1	A1	A1	A1	A1
유진투자증권	장기	A/S	A/S	A/S	A/S	A/S	A/S
	단기	A2+	A2+	A2+	A2+	A2+	A2+
DB증권	장기	A+/S	A+/S	A+/S	A+/S	A+/S	A+/S
	단기	A1	A1	A1	A1	A1	A1
LS증권	장기	A/S	A/S	A/S	A/S	A/S	A/S
	단기	A2+	A2+	A2+	A2+	A2+	A2+

증권

기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국증권	장기	-	-	-	-	-
	단기	A2+	A2+	A2+	A2+	A2+
다올투자증권	장기	A-/S	A-/P	A/S	A/S	A/N
	단기	A2-	A2-	A2	A2	A2-
SK증권	장기	A-/S(후)	A/S	A/N	A/N	BBB+/S(후)
	단기	A2+	A2+	A2+	A2	A2
한양증권	장기	-	-	-	-	-
	단기	A2	A2	A2	A2	A2
케이프투자증권	장기	-	-	-	-	A-/S
	단기	-	-	-	A2-	A2-
리딩투자증권	장기	-	-	-	-	BBB+
	단기	-	-	-	A3+	A3+
노무라금융투자	장기	AA-/S	AA-/S	AA-/S	AA-/S	AA-/S
	단기	-	A1	A1	A1	A1
한국SG증권	장기	-	A+/S	A+/S	A+/S	A+/S
	단기	-	-	-	-	-

주1: 2025년 등급은 2025년 11월 30일 NICE신용평가(주) 보유 유효등급 기준임

주2: 등급전망(Rating Outlook)은 P(Positive: 긍정적), S(Stable: 안정적), N(Negative: 부정적), D(Developing: 유동적)로 구분됨

주3: 등급감시(Credit Watch)는 등급상향 검토↑, 등급하향 검토↓, 불확실 검토◆로 구분됨

주4: 지금보증 또는 담보부보증 등을 바탕으로 부여된 신용등급은 표기를 생략함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 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시기 및 하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기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